

무역과 해외직접투자가 한국의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 1981~1995년의 경우* —

마 재 신**

세계화의 진전이 소득분배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일반적 우려가 만연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실제로 우리 나라의 소득분배를 악화시킬 것인지에 대하여는 제대로 된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무역액과 해외 투자의 증가가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 나라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는 우리 나라의 소득불평등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여왔다. 따라서 1980년대 이후의 경우 Kuznets가설은 적용되기에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무역의존도가 증가되는 경우 우리 나라의 소득불균형 정도는 개선되는 경향이 있다. 셋째,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증가는 소득불평등 수준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핵심주제어: 세계화, 소득분배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F3

I. 서 론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그 긍정적·부정적 측면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왔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세계화의 진전이 소득분배구조를 악화시킨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세계화가 실제로 특히 개발도상국의 소득분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는 별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소득분배구조 변화의 이유에 대한 의견 또한 엇갈려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Barro(2000)는 세계화의 특징 중 하나인 무역액

* 초고에 대해 유익한 논평을 해 주신 이연호 교수님과 두 심사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물론 남아 있는 모든 오류는 본 연구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단국대학교 상경학부 부교수, 주소: 서울 용산구 한남동 산 8, 전화: (02) 709-2512, E-mail: mahsong@hitel.net

증가를 소득불균형 심화의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Paus and Robinson(1999)은 개발도상국 내의 소득불균형이 무역액 증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무역액의 증가와 더불어, 해외직접투자의 확산은 세계화의 또 다른 측면이기도 하다. 그것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몇몇 가설이 제시되어 왔다. Mundell(1957)과 Obstfeld(1998)는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이 개발도상국의 소득불균형 개선으로 귀결된다고 본다. 반면, Feenstra and Hanson(1997)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이 미숙련노동자들에 대한 임금보다 숙련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을 더 상승시킴으로써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킨다고 본다. 이러한 가설에 대한 검증은 Feenstra and Hanson(1997)의 가설이 멕시코에 대해 적용된 경우와 Mahler *et al.*(1999) 등을 제외하면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이 논문은 무역액 증가와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증대라는 세계화의 진전이 우리 나라의 소득분배구조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경험적 연구를 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II절은 무역 및 해외직접투자의 증대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의 연구성과들을 비교·설명한다. 제III절은 모형과 자료가 설명되며, 경험적 연구결과들이 제시된다. 제IV절은 결론을 제시한다.

II. 세계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많은 요인이 소득분배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1인당 국민소득은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아 온 변수에 해당한다. Kuznets(1955)는 소득불균형과 1인당 국민소득수준 사이에 역U자 곡선과 같은 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고, Kuznets가설을 검증함에 (1인당 국민소득)²항이 설명변수로서 삽입되어 왔다. Papanek and Kyn(1995)과 Deininger and Squire(1998)는 경제발전의 수준이 소득불균형상의 변화를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Barro(2000)는 1인당 국민소득이 1,6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Gini계수가 상승하지만, 그 이상인 경우에는 Gini계수가 하락함을 보였다. 그러나 그러한 관계가 썩 만족스럽게 보인 것은 아니다.

최근 20여 년과 같이 세계화가 진전되는 시기에는 대외변수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소득분배의 변화하는 양상을 이해하는 데에 큰 오류를 낳을 수 있다. 단,

세계화는 본 연구에서 무역액과 해외직접투자의 증가로 정의된다.

무역액의 증대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Stolper-Samuelson(1941) 정리가 널리 알려져 있다. 이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생산요소가 풍부한 사람들은 무역전개에 의해 이익을 보나, 상대적으로 생산요소가 희소한 사람들은 손해를 보게 된다고 한다. Stolper-Samuelson정리와는 달리, 일반인들의 견해에 의하면, 국제무역의 증대는 이로 인한 기회를 잘 이용할 수 있는 부유층을 보다 부유하게 만들지만, 빈곤층은 상대적으로 더욱 빈곤해진다는 것이다. Spilimbergo, Londono, and Szekely(1999)는 보다 자유로운 정책을 구사하는 정부들은 보다 자유로운 무역정책 및 재분배에 보다 소극적인 정책을 사용하기 쉽다는 점에서 이러한 일반인들의 견해를 뒷받침한다.

무역증대가 선진국의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은 많은 저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다. 예를 들어, Borjas and Ramey(1994), Wood(1998), Gustafsson and Johansson(1999)은 무역증대로 인해 1980년대 선진국들 국내의 소득격차가 커졌다는 것을 보였다. 반면, Bound and Johanson(1992), Lawrence and Slaughter(1993), Sachs and Shatz(1994)는 무역이 소득격차 증대를 설명하는 데에 별로 중요한 의미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개발도상국들의 경우에 대하여는, Paus and Robinson(1999)의 경우, 무역증대가 소득불균형을 설명하는 데에 유의미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인 반면, Beyer, Rojas, and Vergara(1999)는 칠레에 대한 공적분기법을 적용한 결과 무역증대가 칠레의 소득불균형을 증가시키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 이들과는 달리 Harrison and Hanson(1999)은 멕시코의 경우 Stolper-Samuelson정리가 지지됨을 보였다.

세계화가 분배에 미치는 영향이 주로 무역의 측면에서 연구된 반면,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이 개발도상국의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Mahler *et al*, 1999).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국제자본이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가정해 보면, 개발도상국에서는 자본유입 이전에 비해 자본이 더 풍부해지므로, 노동의 한계생산성 증가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게 되므로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은 소득불균형을 완화하게 될 것으로 Mundell(1957)과 Obstfeld(1998)는 예상한다. 본고에서는 편의상 이를 Mundell-Obstfeld가설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Mundell-Obstfeld가설은 개발도상국 경제의 해외투자에 대한 종속을 강조하는 사회학의 해외자본침투학파(foreign capital penetration school)의 입장과 정반대의 입장에 서게 된다. 후자의 경우, 해외투자의 유입은 개발도상국 내에 고임금

을 받는 엘리트와 더욱 열악한 상황에 몰리게 되는 다수의 노동자들을 낳게 되어,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Alderson and Nielsen (1999)은 이러한 입장을 경험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단순회귀 분석의 결과에 불과하여 1인당 국민소득이나 무역액과 같은 다른 주요 변수들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큰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해외자본침투학파의 주장은 Feenstra and Hanson(1997)에 의해 보다 엄밀하게 설명되었다. 그들은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향하는 자본이동은 선진국의 관점에서 보자면 상대적으로 미숙련노동을 이용하는 기술을 동반하는 것이지만, 개발도상국의 관점에서는 그 역이 성립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의 자본유입은 숙련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며, 이는 숙련노동력의 상대적 임금을 증가시킨다고 본다. 따라서 자본유입은 숙련노동력과 미숙련노동력 간의 임금불균형을 악화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1975~1988년 기간중 멕시코의 경우 다국적 기업들에 의한 아웃소싱으로 인해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증대는 멕시코의 소득불균형을 심화시켜 왔다고 주장하였다.

위와 같은 저자들은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이 소득불균형에 어떤 방향에서건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얻고 있으나, Mahler *et al.*(1999)은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이 소득불균형에 별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분석은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해외직접투자의 순수입이 압도적인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분석으로서 수용되기에는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III. 경험적 연구결과

이 항에서는 앞에서 설명된 1인당 국민소득, 무역액 증대, 해외직접투자의 유입과 같은 변수들이 우리 나라의 소득불균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살피기 위해 다음의 회귀식을 상정한다.

$$\text{Gini계수} = a + b \text{ 1인당 GNP} + c(\text{1인당 GNP})^2 + d \text{ 해외직접투자 유입액} \\ + e \text{ 무역의존도} + U$$

여기서, U : 의례적으로 가정되는 오차항

위의 식은 우리 나라의 1981~1995년 기간중 연간자료에 대해 적용된다. 이 기간에 한정되는 이유는 Gini계수를 엄밀히 추정하고 있는 박찬용·김미숙(Park

and Kim 1998)의 연구결과가 담고 있는 자료 등 본 연구에 사용되는 자료의 이용가능성 때문이다. 경험적 연구에 동원되는 통계자료는 Gini계수의 경우 Park and Kim(1998)이 추정한 도시가계소득/지출기준을 이용하며, 기타의 변수들은 통계청, 한국주요경제지표(2000)의 자료를 이용한다. 1인당 GNP는 1,000달러 표시이며,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액은 1,000달러, 그리고 무역의존도는 (수출액+수입액)/GDP이다.

위의 회귀식에서 회귀계수부호는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 먼저, Kuznets가설이 타당하다면, $b > 0$ 와 $c < 0$ 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해외직접투자 유입의 계수부호는 가설에 따라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Mundell-Obstfeld가설이 타당하다면, $d < 0$ 가 예상된다. Feenstra-Hanson(1997) 가설이 타당하다면,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증대에 따라 Gini계수가 커질 것이므로 $d > 0$ 가 예상된다. 무역의존도를 볼 때, 우리 나라의 주요 무역상대국들의 경우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들의 비중이 더 크므로, 우리 나라는 자본보다는 노동풍부국으로 가정하는 것이 비교적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Stolper-Samuelson정리가 적용되면, 무역증대에 따라 소득불균형이 완화되는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e < 0$ 가 예상된다.

앞의 회귀식에 대하여 통상최소자승(OLS)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는 <표 1>과 <표 2>에 담겨 있다. 우선 <표 1>은 Gini계수 추정치가 도시가계의 소

<표 1> 회귀분석결과 — 도시가계소득기준 Gini계수 사용시

상수항	1인당 GNP	(1인당 GNP) ²	무역의존도	해외직접 투자 유입액	조정된 R ²	D.W.	F
.510** (7.081)	-.057 (-1.966)		-.200* (-1.777)		.121	1.176	1.960
.460** (4.816)	.027 (.246)	-.079 (-.799)	-.141 (-1.033)		.093	1.361	1.480
.382** (58.334)	-.053* (-2.191)			.023 (2.086)	.185	1.317	2.587
.367** (28.193)	.045 (.573)	-.102 (-1.309)		.020 (1.794)	.231	1.456	2.399
.585** (12.486)	-.140** (-5.553)		-.319** (-4.347)	.035** (4.610)	.673	1.786	10.594**
.656** (9.559)	-.253* (-2.967)	.093 (1.383)	-.410** (-4.244)	.041** (4.797)	.698	2.199	9.084**

주: () 안의 값은 t-값, *는 5% 유의수준에서, **는 1% 유의수준에서 각각 유의미함.

득기준으로 작성된 경우이다. 추정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명변수로서 1인당 GNP와 무역의존도가 쓰인 경우, 결정계수와 개별변수들 거의 대부분의 추정치들이 그리 유의미하지 않게 나오고 있다. 또한, D.W. 통계량은 양의 1차자기상관이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이는 주요 유관설명변수가 누락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다. 또한, 1인당 GNP나 (1인당 GNP)²항의 추정계수들이 전혀 유의미하지 않으므로, Kuznets가설을 긍정하는 결과라고는 결코 볼 수 없다.

둘째, 설명변수로서 1인당 GNP와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액이 쓰인 경우 역시, 결정계수가 낮으며, 개별변수들 대부분의 추정치들이 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게 나온다. D.W. 통계량 역시 1차자기상관이 존재할 가능성이 큼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주요 유관 설명변수가 누락되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추정계수의 결과 자체를 보아도 Kuznets가설을 긍정하는 어떤 유의미한 결과라고 볼 수 없다.

셋째, 1인당 GNP와 세계화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두 변수, 즉 무역의존도와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액을 모두 설명변수로 사용한 경우 조정된 결정계수가 매우 증진된다. 이는 주요 유관설명변수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Kuznets가설은 우리 나라의 자료를 통해 볼 때 지지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1인당 GNP의 증가에 따라 Gini계수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인당 GNP)²항은 어떤 그럴 듯한 유의수준하에서도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무역의존도의 계수는 1% 유의수준에서도 유의미하며, 음의 부호를 보인다. 즉, 무역의존도가 증가함에 따라 소득불균형이 완화되는 결과를 보여, Stolper-Samuelson정리가 우리 나라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액증가는 Gini계수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며, 그 추정계수는 1% 유의수준에서도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표 2〉는 Gini계수로서 도시가계지출기준 Gini계수가 사용된 경우의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그 결과는 질적으로 보아 〈표 1〉의 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우선, 1인당 GNP가 증가함에 따라 Gini계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Kuznets가설이 긍정된다는 증거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1인당 GNP와 더불어 세계화의 척도로서 무역의존도와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액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 모형의 설명력이 대단히 현저하게 향상되며, 주요 통계량들은 만족스러워진다. 무역의존도의 경우, 그것이 증가함에 따라 Gini계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반면, 해외직접투자유입액의 증가

〈표 2〉 회귀분석결과 — 도시가계지출기준 Gini계수 사용시

상수항	1인당 GNP	(1인당 GNP) ²	무역의존도	해외직접 투자 유입액	조정된 R ²	D.W.	F
407** (10.644)	-.031 (-2.018)		-.181* (-3.025)		.365	1.148	5.029*
.368** (7.519)	.035 (.638)	-.063 (-1.243)	-.134 (-1.917)		.393	1.499	4.019*
.292** (64.812)	-.008 (-.511)			.010 (1.277)	.015	1.135	1.107
.276** (34.363)	.091 (1.901)	-.105* (-2.176)		.006 (.930)	.249	1.521	2.547
.447** (18.258)	-.076** (-5.728)		-.244** (-6.374)	.020** (4.719)	.771	2.103	16.718**
.463** (12.008)	-.101* (-2.112)	.021 (.561)	-.265** (-4.882)	.020** (4.166)	.756	2.195	11.836**

주: () 안의 값은 t-값, *는 5% 유의수준, **는 1% 유의수준에서 각각 유의미함.

는 Gini계수를 증가시키는 압력을 가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세계화의 진전이 우리 나라의 소득불균형에 어떤 일방적 영향을 준다고 보기에는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단, 최근 몇 년간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이 급증했던 것을 고려해 보면, 최근의 세계화 진전은 우리 나라의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는 있을 것이다.

IV. 결 론

세계화는 무엇보다도 무역액과 해외직접투자의 증가가 특징이다. 최근 20여 년간과 같이 세계화가 진전되는 시기에는 세계화를 나타내는 대외변수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소득분배의 변화하는 양상을 이해하는 데에 큰 오류를 낳을 수 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세계화의 진전이 소득분배구조를 악화시킨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세계화가 실제로 특히 개발도상국의 소득분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는 별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논문은 무역액증가와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증대라는 세계화의 진전이 우리 나라의 소득분배구조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경험적 연구를 하고자 한다.

1인당 국민소득은 소득분배의 결정요인으로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아 온 변수에 해당한다. Kuznets는 소득불균형과 1인당 국민소득수준 사이에 역U자 곡선과 같은 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무역액의 증대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Stolper-Samuelson정리가 널리 알려져 있다. 이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풍부한 생산요소를 소유한 사람들은 무역전개로 의해 이익을 보나, 상대적으로 희소한 생산요소를 갖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게 된다고 한다. Stolper-Samuelson정리와는 달리, 대부분 일반인들은 국제무역의 증대가 이로 인한 기회를 잘 이용할 수 있는 부유층을 보다 부유하게 만들지만, 빈곤층은 상대적으로 더욱 빈곤해진다고 주장한다. 무역증대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은 많은 저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다. 세계화가 분배에 미치는 영향이 주로 무역의 측면에서 연구된 반면,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이 개발도상국의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해외직접투자가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Mundell-Obstfeld가설과 Feenstra and Hanson가설을 대비하여 제시한다.

본고에서는 1인당 GNP, 무역액 및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이 Gini계수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 나라의 1981~1995년 기간중 연간자료에 대해 적용하였다. 도시가계소득과 지출기준 Gini계수가 사용된 경우의 회귀분석결과를 보면, 1인당 GNP가 증가함에 따라 Gini계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Kuznets가설이 긍정된다는 증거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는 1980년대와 1990년대 경우, 우리 나라는 Kuznets가설상 문턱점의 소득(threshold income)을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1인당 GNP와 더불어 세계화의 척도로서 무역의 존도와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액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 모형의 설명력이 대단히 현저하게 향상되며, 주요 통계량들은 만족스러워진다. 무역의존도의 경우, 그것이 증가함에 따라 Gini계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반면,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의 증가는 Gini계수를 증가시키는 압력을 가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세계화의 진전이 우리 나라의 소득불균형에 일방적 영향을 준다고 보기에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 1997년 말 이래 외환위기의 극복과정에서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이 급증했던 것을 고려해 보면, 최근의 세계화 진전은 우리 나라의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통계자료상의 한계로 말미암아 결론도 매우 제약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무엇보다도 통계자료가 15년간의 연간자료에 불과하여 이

용할 수 있는 계량경제학적 기법이 매우 단순하게만 구사되었다. 향후 더 장기간의 적절한 통계자료를 이용하면서 단위근검증과 공적분검증을 통해 더 엄밀한 분석이 이루어질 때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더욱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Alderson, Arthur S. and Francois Nielsen, "Income Inequality, Development, and Dependence: A Reconsider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64, No. 4, Aug. 1999.
- Barro, Robert J., "Inequality and Growth in a Panel of Countries," *Journal of Economic Growth*, Vol. 5, No. 1, Mar. 2000.
- Beyer, Harald, Patricio Rojas, and Rodrigo Vergara, "Trade Liberalization and Wage Inequality,"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59, No. 1, June 1999.
- Borjas, George J. and Valerie A. Ramey, "Time-Series Evidence on the Sources of Trends in Wage Inequa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Vol. 84, No. 2, May 1994.
- Bound, John and George Johnson, "Changes in the Structure of Wages in the 1980s: An Evaluation of Alternative Explanat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2, No. 3, Jun. 1992.
- Deininger, Klaus and Lyn Squire, "New Ways of Looking at Old Ideas: Inequality and Growth,"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57, No. 2, December 1998.
- Feenstra, Robert C. and Gordon Hanson,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Relative Wages: Evidence from Mexico's Maquiladora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42, No. 3/4, May 1997.
- Gustafsson, Bjorn and Mats Johansson, "In Search of Smoking Guns: What Makes Income Inequality Vary over Time in Different Coun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64, No. 4, August 1999.

- Harrison, Ann and Gordon Hanson, "Who Gains from Trade Reform? Some Remaining Puzzles,"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59, No. 1, June 1999.
- Kuznets, Simon,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equa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45, 1955.
- Lawrence, Robert Z. and Matthew J. Slaughter, "International Trade and American Wages in the 1980s: Giant Sucking Sounder or Small Hiccup,"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Vol. 2, 1993.
- Mahler, Vincent A., David K. Jesuit and Douglas D. Roscoe, "Exploring the Impact of Trade and Investment on Income Inequality,"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32, No. 3, May 1999.
- Mundell, Robert A., "International Trade and Factor Mobi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47, Jun. 1957.
- Obstfeld, Maurice, "The Global Capital Market: Benefactor or Menac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12, No. 4, Fall 1998.
- Papanek, G. and O. Kyn, "The Effect on Income Distribution of Development, the Growth Rate and Economic Strategy,"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23, No. 1, 1995.
- Park, Chanyong and Meesook Kim, *Current Poverty Issues and Counter Policies in Korea*, Seoul: KIHASA and UNDP, 1998.
- Paus, Eva and Michael D. Robinson, "Real Wage Performance under Greater Trade Openness: Lessons from Latin America and Asia," *Journal of Developing Areas*, Vol. 33, No. 2, Winter 1999.
- Sachs, Jeffrey D. and Howard J. Shatz, "Trade and Jobs in U.S. Manufacturing,"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Vol. 1, 1994.
- Spilimbergo, Antonio, Juan L. Londono, and Miguel Szekely, "Income Distribution, Factor Endowments, and Trade Openness,"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59, No. 1, June 1999.
- Stolper, Wolfgang and Paul Samuelson, "Protection and Real Wages,"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9, 1941.
- Wood, Adrian, "Globalization and the Rise in Labour Market Inequalities," *Economic Journal*, Vol. 108, No. 450, Sep. 1998.

[Abstract]

The Impact of Trad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on
Income Distribution of Korea
— The Experiences of the Years 1981~1995 —

Jai Sheen Mah

It is a popular belief that the progress of globalization would deteriorate the situation of income inequalities. However, there are only a few, if any, researches on it. This paper analyzes the impact of increases in trade values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on income inequalities of Korea. The regression results can be summarized in the following manner. First, increase in per capita income contributed to ameliorate income inequalities of Korea. Therefore, the Kuznets hypothesis does not appear to be valid since the 1980s. Second, increase in the trade dependency ratio tended to ameliorate income inequalities. Third, increas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deteriorated the situation of income inequalities.